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오늘부터 도의회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1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입법지원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1
CBS	온라인	강원도의회 "직원 역량강화로 의회 내실강화"	2
연합뉴스		"강원특별법 효과 느끼도록"...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크...	3
江原日報	12면	강릉시민 희망음악회 간담회	4
江原日報	03면	부의장 정해진 도의회 ... 기행위원장 경쟁	4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특자도 사회공헌장 수상자 선정	5
강원종합복지신문	온라인	강릉시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결식우려 아동에...	6
江原日報	11면	내일부터 횡성 수소충전소 상업 운영	7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미래를 위한 100년 사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	8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특별자치도 을지연습 돌입... 내일 전국 민방위	9
강원도민일보	03면	김 지사 "보조금 감사서 혈세 도둑 용납 안해"	10
강원도민일보	04면	세수 감소 직격탄...도교육청 올해 2차 추경 안한다	10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전북 840억원 규모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11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상반기 지방세 전년동기비 1497억원 감소	11
강원도민일보	01면	태백선 EMU-150 도입	12
강원도민일보	03면	'선거구 면적 특례 도입' 춘천 단독 분구 돌파구 될까	13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WT본부 유치 효과 극대화 나섰다	13
江原日報	01면	평창 돌아온 조선왕조실록·의궤 보관·전시 공간 10월26일 ...	14
江原日報	04면	입추 지났는데 더 극성... 말라리아 환자 2배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WT 유치, 태권도 산업화 시발점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해수욕장 인기 예전같지 않아 우려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체험과 힐링으로 '산림 수도, 강원도' 인식시켜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수출 월 3억 달러 돌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19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22

오늘부터 도의회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강특별 조례입안 지원 능력 제고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2~23일 입법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분야별 강연을 연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2일부터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지원관, 법제관, 7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은 내년 6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의 자치법

규입안 역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인·허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군사보호구역 행위제한(22일), △환경영향평가법 대상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23일) 등에 대해 이뤄진다. 권혁열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4대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상 특례와 위임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인 조례입법 지원 능력을 한층 더 제고 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철화

江原日報

2023 08 21 ()
03

자치도의회 입법지원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22, 23일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지원관, 법제관을 비롯해 7개 전문위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에

대한 입법수요가 증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를 초청해 국토계획법, 농지법, 군사기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등 강원특별법 4대 규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위임사항 등을 다룬다. 이현정기자

2023 08 21 ()

CBS

강원도의회 "직원 역량강화로 의회 내실강화"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22~23일 전문위원실 전체 직원 등 입법지원 역량강화 교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권혁열 의장)가 8월 비회기를 활용해 직원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2일과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지원관, 법제관을 비롯한 7개 전문위원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다.

지난 6월 7일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입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의회 직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한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대 위상에 걸맞는 역량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넘어 정책 대의기관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열 의장은 "이번 워크숍이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도의원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례입법 지원 능력을 한층 더 제고 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 도의회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특별법 효과 느끼도록"...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2~23일 세미나실에서 정책지원관과 법제관을 비롯한 7개 전문위원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입법 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레 입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농지·군사기지·환경영향평가·산지 관리 주요 내용과 위임사항 등을 공부한다.

권혁열 의장은 "도민들이 특별법 개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특별법상 4대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와 위임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앞으로도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틈틈이 주기적으로 이어 나가 도의회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강릉시민 희망음악회 간담회 김용기 법무보호위원강원동부협의 회장과 허진석 수석부회장은 21일 강릉지역 한 음식점에서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과 ‘강릉시민 희망음악회’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부의장 정해진 도의회 ... 기행위원장 경쟁

28~29일 연찬회서 추대 전망
김길수, 문관현 등 5명 하마평

속보=한창수(횡성)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도의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본보 18일자 2면 보도)되자 이제 공식이 된 기획행정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한창수 전 위원장은 앞서 기획행정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기획행정위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는 28~29일 태백, 영월에서 진행되는 연찬회를 통해 위원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김길수 의원 ◇문관현 의원 ◇임미선 의원 ◇최승순 의원 ◇하석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는 김길수(영월) 부위원장과 류인출(원주)·문관현(태백)·심영곤(삼척)·임미선(비례)·최승순(강릉)·하석균(원주)·한창수 위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한창수 전 위원장,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영곤 위원, 그리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다.

하석균 위원은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기획행정위원장직에 도전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상태다. 강

원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길수 부위원장도 임미선·최승순·문관현 위원과 함께 후보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한창수 전 위원장이 28일 연찬회 전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창수 전 기획행정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으로서 후임 인선을 위한 의견 조율까지는 마무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주 중으로 조율을 하려 한다”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강영희씨



홍경운 단장



김태균 이사장



이병길씨



김광호 공장장

강원특자도 사회공헌장 수상자 선정

개인 2명·단체 3곳 도지사 표창

내달 8일 사회복지대회서 시상

제12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장 수상자가 선정됐다.

사회공헌장은 지역사회 공헌 및 기부문화 조성에 공헌한 도민과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희망나눔 △사랑나눔 △행복나눔 등 3개 부문(개인 2, 단체 3)에 총 5명이다.

제12회 사회공헌장 수상자는 부문별로 △희망나눔 개인 부문 강영희(춘천시)씨 △희망나눔 단체 부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건강이봉사단(단장 홍경운)

△사랑나눔 단체 부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행복나눔 개인 부문 이병길(홍천군)씨 △행복나눔 단체 부문 쌍용씨앤이(주)영월공장(공장장 김광호)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개인·단체 등 18명의 후보가 응모했으며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장 추천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 17일 도청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김길수 도의원)에서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내달 8일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에서 열린다. 수상자들에겐 도지사 표창패가 수여된다. 김덕형

2023 08 21 ()

강원종합복지신문

강릉시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결식 우려 아동에게 식품꾸러미 전달

서영석 기자



[강원종합복지신문 서영석 기자]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복순, 윤용녀)는 지난 11일(금) 방학기간 급식 중단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1명에게 식품꾸러미와 삼계탕을 전달했다.

김복순 공동위원장과 윤용녀 교1동장은 “방학동안 소외감을 느낄수 있는 아동들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도의회 심오섭 의원은 “여름방학 동안 혼자 끼니를 챙겨야 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방학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영석 기자 webmaster@gwelfare.co.kr

江原日報

2023 08 22 ()

11

내일부터 횡성 수소충전소 상업 운영

시간당 승용차 6대 충전 가능
수소차량 구입 활성화 기여

【횡성】횡성에 수소차 충전소가 준공돼 23일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

횡성군은 21일 횡성읍 목계리 176 일원 3,300㎡ 부지에 조성된 횡성수소충전소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원, 김경녀 횡성교육장,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마기성 횡성농협 조합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국비 15억원과 도·군비 각각 11억원 등 모두 37억원이 투입



◇횡성군은 21일 횡성읍 목계리에서 횡성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된 수소차 충전소는 시간당 승용차 6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은 휴무일이다. 이용자는 수소충전소 정보 앱인 하잉(Hying)에서 충전소 휴무 여부, 재고 현황, 대기 차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해 충

전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횡성수소충전소는 횡성 100여대, 원주 550대가량인 수소 승용차와 올해 도입할 수소 버스 14대 등 인근 지역 수소차량 소유주들의 충전 불편을 덜고, 수소차량 구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유학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19

‘미래를 위한 100년 사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의정칼럼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바야흐로 첨단 기술경쟁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하여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는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무회의와 신년사를 통해 반도체 교육 및 반도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총 15만명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이를 위한 마이스터고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본방향’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수도권 대비 부족한 인프라 및 산업체 현황을 고려했을 때,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등

학교부터 반도체 인재양성 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 및 기업의 연계를 통한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1월, 도청-교육청-반도체 공유대학 간 ‘강원형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교육청 역시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학과 개편 사업을 진행했으나, 소수의 학급 수 증설에만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원주, 춘천, 강릉과 같은 도시만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과 정부 기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교육청의 학급 수 증설과 학과 개편 사업만으로 반도체 인력 수요에 따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선 학교에서 학과 개편 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필자는 지역의 균등발전 차원에서 삼척에 있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 지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전환했을 때 이점으로는 첫째, 전산을 베이스로 하는 학과가 있어 전환에 용이하다는 점

이다. 전산과 반도체는 학문적 유사성이 높아 타학과에 비해 전환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둘째, 인근 대학과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 차로 30분 거리에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있다. 삼척캠퍼스에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를 비롯한 AI 소프트웨어학과 등 반도체 관련 유사 학과가 있어서 서로 긴밀한 연계 협력이 가능하다.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의 자세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삼척시와 도교육청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한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래의 먹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편의주의 식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인재양성이 강원자치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100년 사업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삼척의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반도체 인재양성의 신(新) 거점 기지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02

강원특별자치도 을지연습 최초보고회가 21일 도청 총무시설 종합상황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도청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 을지연습 돌입... 내일 전국 민방위

강원특별자치도가 21일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을지연습 첫 날인 이날 도는 도청 총무시설에 마련된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보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각 실·국장, 도 소방본부 및 2군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날 도는 오전 8시를 기해 전시대비 상황을 가정한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했다. 전시종합상황실은 각 실·국별 임무반을 편성해 전시전환 및 국가총력전

훈련 상황 등에 나섰다. 이번 을지훈련은 도내 18개 시·군과 도산하기관을 비롯해 민·관·군·경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24일까지 예정된 을지훈련은 기관별 국지도발 대응기구 및 가용자산 훈련과 시·군별 테러대비 및 화재대피 훈련, 민방공대피 실제훈련 등이 진행된다. 을지연습과 연계해 23일 오후 전국에서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진행된다. 김덕형

2023 08 22 ()
03

강원도민일보

김 지사 “보조금 감사서 혈세 도둑 용납 안해”

2019~2022년 민간보조 459건 해당
도, 기업 보조금 감사 대상 검토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달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진태 지사는 “혈세 도둑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진행한다. 도청 소관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민간 보조금 감사 대상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청 5개 실·국(기획조정실·행정국·경제국·농정국·산림환경국)이 추진한 민간보조사업 459건이다. 기업 보조금 감사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청)산업국과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연구개발비 명

목으로 지급됐던, 드론 시제기 사업과 같은 수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을 들여다보겠다”며 “새로운 도정에서 이제 눈 먼 돈은 없다. 혈세 도둑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도비 131억원이 투입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 사업은 지난 2021년 최문순 도정에서 추진된 이후 사업 실효성 논란과 함께 추진 2년만에 중단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사업의 특정 감사를 진행,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가 집행된 점을 들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도는 기업 보조금 감사 대상 사업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 보조금 사업 현황 등을 실무 부처가 파악하고 있다. 예산 과목상 분류를 먼저 진행하고 감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04

세수 감소 직격탄...도교육청 올해 2차 추경 안한다

2015년 이후 첫 2회 추경 미진행
지난해 8145억원 편성 올해 대조
교육사업 진행 차질 우려 목소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타격이 불가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2회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2회 추경을 진행하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2차 추경 계획이 아직 없다”면서 “최근 몇 년간 세수가 좋아 교부금이 늘다 보니 2회 추경이 계속 있었지만 원래 2회 추경은 정기화된 추경이 아니다. 세금이 적게 걸려 2회 추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본지가 도교육청을 통해 확인 결과 2회 추경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5년 897억원이던 도교육청 2회 추경 예산은 2016년 1304억원, 2017년 2638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했다. 2018년(1361억원)과 2019년(143억원)에도 2회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 세금이 적게 걸리며 도교육청 예산도 709억원 감경됐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재차 3469억원이 2회 추경을 통해 교부되며 반등했다. 지난해의 경우 2회 추경으로만 8145억원이 편성되며 사상 처음으로 도교육청 총예산이 4조원을 넘겼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수가 악화되면서 도교육청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

는 상황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앞서 올해 1회 추경 규모를 2518억원으로 책정했으나 1회 추경에서 부족분 1350억원이 발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될 예정이던 5100억원에서 필요분을 감액해 마련했다.

1회 추경에서 부족분이 발생했고, 2회 추경이 이뤄지지 않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교육사업 진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몇 년간 풍족하게 돈을 주다가 갑자기 끊기면 그 부작용은 더 심할 것”이라며 걱정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예산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로서도 아쉽다”며 “당장 돈이 없어 사업을 못 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02

강원·전북 840억원 규모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지자체·공공기관·모태펀드 출자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지역균형·벤처 생태계 구축 기대조성에서도 60억원을 출자한다. 이
밖에 전북 75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59억원, 모태펀드가 294억원을 조달
해 588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든다.
기업에 투자되는 자펀드는 총 840억 규
모다.강원특별자치도가 전라북도와 한국벤
처투자증권계과 함께 840억원 규
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전북권을
비롯해 부산과 동남권(울산·경남), 충
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광
주·제주권 등 5개 권역에 지역혁신 벤
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도는 21일 대전 소재 한국수자원공
사에서 전라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회와 함께 지역혁신 벤처펀
드 조성 및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도는 지난 2021년 조성한 강원형 벤
처펀드에 이어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 벤처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자체와 공공
기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
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자
금 마련이 어려운 벤처 기업을 위한 일
종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는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강원, 전북 지
역의 혁신기업과 수자원 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균형을 촉진하고 벤
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
다"고 했다.

이번 강원·전북 지역혁신 벤처펀드

김덕형

2023 08 22 ()
02

강원도민일보

강원 상반기 지방세 전년 동기비 1497억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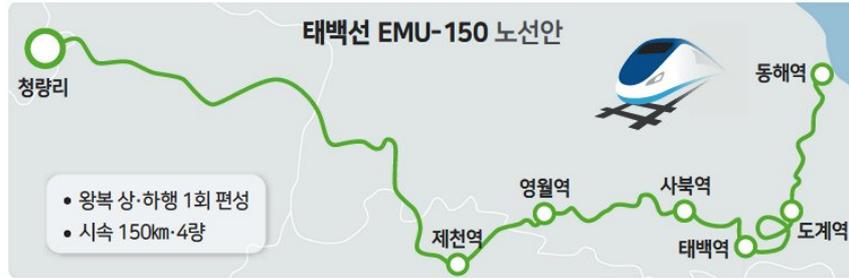
취득세 30% 줄어 세수 감소 견인

지난해와 비교해 강원특별자치도 지
방세 감소액이 1분기 890억원에서 2
분기 1497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방
세 세수 핑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목
표액 대비 징수율을 나타내는 진도율
은 상반기 기준 46%로 집계됐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에 따르면 강원도 지방세입 현황은 올
해 상반기 기준 1조 4797억원으로 집
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7억
원 줄은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
세가 지난해 보다 30% 감소했다.
2715억원이 견혀 세수 감소를 견인했
다. 이밖에 △지방소득세 -138억원 △
지방교육세 -127억원 △자동차세 45억원 등 순으로 감소했다. 올해 견힐 것
으로 예상된 지방세는 총 3조 219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6월까지 견
힌 지방세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46%로 집
계됐다. 국세 수입 또한 40조원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세와 연동된 강원
도 몫 지방교부액 감소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세수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도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부서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지방세 세입 추
계를 최종 산정한다"며 "이를 토대로
미집행 예산 및 취소 사업 등을 검토해
올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 지출 예산을
조정하게 된다"고 했다.

김덕형

2023 08 22 ()
01

강원도민일보



서울~태백 2시간대 주파 태백선 EMU-150 도입

**내달 1일부터, 약 1시간씩 단축
손실보전금 연 15억원 부담 합의
25일 국토부장관·지사 시승**

내달 1일부터 제천과 영월, 동해를 잇는 태백선에 EMU-150 열차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태백 2시간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다. 정선과 태백,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이 사실상 '준수도권 편입 효과'를 통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연계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EMU-150 열차 도입은 강원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작업과 맞물려 폐광지역 교통망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청량리역부터 동해역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은 무궁화 열차 5편이 운행되고 있다. 소요 시간은 청량리역부터 영월역까지 2시간 20분·사북역(정선) 3시간 10분, 태백역 3시간 32분, 도계역 4시간, 동해역 4시간 39분이다.

EMU-150 열차가 도입되면 최고 시속 150km 기준 청량리~영월 1시간 26분, 사북역 2시간 11분, 태백역 2시간 36분 소요된다. 각각 1시간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폐광지역 접근성이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다만, 당장은 노선 노후화와 신형 열차 신뢰성 등을 이유로 최대 시속 운행은 불가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태백선은 석탄 및 광물 수송을 위해 만든 화물열차용 선로로 속도를 많이 못내는 상황"이라며 "선로 자재 또한 굴곡이 심해 곧바로 단축되는 시간은 20~30분 가량"이라고 했다. 운행 시간을 기준으로 청량리부터 영월까지는 1시간 58분, 태백역은 3시간 5분, 동해역은 4시간 12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 관계자는 "향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태백선의 고속철도화 사업을 반영하는 등 장기적으로 EMU-150의 최대 시속 운행과 KTX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손실보전금을 59억원 요구했으나 도와 시·군은 코레일에 운송 수입금 정산을 요구해 연 1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운송수입금을 반영한 손실비용 부담금 산정은 전국 최초 사례다.

도 관계자는 "이번 EMU-150 열차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체류형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 단체장은 오는 25일 태백역에서 EMU-150의 명명식 및 시승 행사를 개최한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03

‘선거구 면적 특례 도입’ 춘천 단독 분구 돌파구 될까

철원·화천·양구 면적 서울 4배
면적 기준 적용 땐 분구 가능성
도내 정개특위 위원들 공감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이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론은 국회의원 정수가 묶여 있는 가운데 의석 확대를 전제로 한 춘천 단독 분구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면적 특례’를 적용하지는 의견도 있어 논의 추이가 주목된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춘천 선거구는 두 석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춘천시 인구는 28만6623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22대 총선 인구범위 상한인구수는 27만1042명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 춘천 단독 분구는 불가능에 가깝다. 선관위 집계 결과, 인구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는 18곳이다. 하한 미달 선

거구 11곳보다 많다. 의석이 줄어야 할 곳보다 늘어날 곳이 많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상한 초과 선거구 18곳 가운데 11개 선거구가 춘천보다 초과인구수가 많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춘천을 확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21대 총선 기준 선거구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 수를 집계한 까닭이다.

다만 춘천은 내년 총선 선거구 논의 대상이다. 국회가 춘천시 분할을 ‘특

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확정할 때는 하나의 시(市)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붙일 수 없게 했다. 국회는 특례로 2020년 총선 예외의를 적용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허영춘·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이같은 논의의 틈속에서 ‘면적 특례’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춘천 단독 분구시, 철원·화천·양구는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한다. 하지만 3개 군을 합친 면적만 2500㎢다. 서울의 전체 면적(605㎢)

보다 4배가 넘다. 허 의원은 “면적 특례를 넣는 방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며 춘천 단독 분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에 대해선 “완전히 그렇지 않다”고 했다.

도내 또 다른 정개특위 위원인 박정하(원주갑) 의원도 면적 특례에 공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에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대도시 중심적”이라며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철화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09

춘천시, WT본부 유치 효과 극대화 나섰다

<세계태권도연맹>

국제행사·교육사업 등 모색
4개 분야별 사업 WT와 협의
시, 국비 확보·부서 신설 추진

속보=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유치가 성공한 춘천시(본지 8월21일자 1면 등)가 태권도 중심도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세계태권도춘천포럼, 춘천 그랑프리대회 승인 등 WT본부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WT측과 협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가 WT본부 측과 협의하고 있는 안건은 크게 국제적 이미 제고, 세계 일류 교육 도시, 문화산업 증진, 대회승인 등 4가지다. 춘천시는 각 항목별 주요 사업 반영 여부를 놓고 WT측과 협의 중이다.

세계태권도춘천포럼, 춘천 그랑프리대회 승인, WT본부 공식 이름 사용시 춘천 표시, 태권도학과 신설시 인턴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WT본부 공식 이름 사용시 춘천 표시와 관련 WT측은 홈페이지 등에 태권도의 수도가 춘천임을 공표하

는 홍보문구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춘천시는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교육사업(국제심판·코치교육), 체덕지 통합 프로그램 공동개발, WT시범단 춘천 정기공연, 세계태권도 엑스포 개최 등을 놓고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WT본부의 경우 사무실 상주 지원이 40명 안팎에 불과, 본부 유치 자체 보다는 본부 유치를 통해 국제행사·교육사업·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점이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WT본부 유치 효과에 대한 평

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행정절차도 속도를 낸다. 춘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국비 확보와 더불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등을 받을 계획이다. 팀장급 직원이 중심이 되는 WT 지원 업무부서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춘천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WT측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2023 08 22 ()

01

江原日報**평창 돌아온 조선왕조실록·의궤
보관·전시 공간 10월26일 개관****가칭 '평창 국립실록박물관'****하루 뒤인 27일부터 일반 공개
'환지본처 기념주간' 행사 풍성**

속보=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가 결정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원본을 보관, 전시하게 될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가칭·이하 실록박물관)이 올 10월26일 개관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최근 오대산 월정사,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이하 범도민환수위)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10월26일 개관식에 이은 27일 일반 공개 등 실록박물관 개관 일정에 대해 밝혔다. 다만 당초 예산의 변동 등으로 인해 이번 실록박물관 개관은 '부분 개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록박물관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를 전면 이관하는 작업은 내년께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월정사와 강원일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환수위는 실록박물관이 개관(본보 2월15일자 1면 등 보도)하는 10월 넷째 주를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강원도, 평창군과 함께 다채로운 기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오대산 사고에서 실록과 의궤가 고향에 돌아온 것을 하늘에 알리는 고유제(告由祭) 봉행을 시작으로, 실록과 의궤가 오대산 사고에 안치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실록·의궤 이운행사'가 오대산 산문부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어 실록과 의궤의 활용 방안을 찾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춘천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와 그라미상 수상자인 비올리스트 네이튼 슈랩 등이 속한 페스타 NYCC가 장작곡 '월정사 랩소디' 등을 들려주는 기념연주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실록박물관에는 1932년과 2006년, 2018년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되돌아온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2011년에 반환된 의궤 82책 원본이 고궁박물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오석기기자

江原日報

입추 지났는데 더 극성... 말라리아 환자 2배

이달 초 전국에 '경보' 발령
 도내 7개 시·군 위험지역 지정
 철원 등 접경지 인근 집중 발생
 발열·오한 증상 땀 의심해야

입추가 지났지만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말라리아'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기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전수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에서 말라리아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524명으로, 지난해 258명의 약 2배 수준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말라리아 증상 환자도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초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7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속초와 강릉은 잠재적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집계된 도내 의사환자 수는 철원 12명, 춘천 3명, 화천·양구·인제·삼척 1명씩으로 접경지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철원과 양구에서 집계된 각각 1명의 환자는 해외유입 환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이후 해외 이동이 늘고 있는 점 등이 환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여름철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모기와 접촉할 일이 늘어난 점 등이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물 웅덩이 등 여름 모기 증식에 적합한 환경이 형성된 것도 환자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10월까지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날씨가 선선해지더라도 야간 외출 시 긴소매, 긴바지 등을 착용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은 증상 발생 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양성 확인됐고,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의 거주자, 휴가철 여행객의 경우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발열과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 19

WT 유치, 태권도 산업화 시발점

-세계대회 유치·관광연계 지역 경기 견인해야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213개국 이 가입한 WT 본부를 최소 30년 동안 춘천에 둘 수 있어,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도 확고해졌습니다. 시는 본부 유치로 지난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의 아픔을 20년 만에 치유했으며, 세계대회를 치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건물 완공과 업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태권도 연맹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태권도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라는 상징성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입장에서 본부 유치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시는 지난 200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전북 무주에 태권도공원 유치를 양보해 시민들이 실망했습니다. 이때문에 춘천시는 그동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9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의 약속에서 서명하면서 춘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본부 유치와 함께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 게임과 세계장애인태권도 오픈챌린지, 세계태권도 시범경연대회 등 세계태권도대회 3종을 3년 연속 춘천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당면한 과제는 본부 건물 준공입니다. WT 본부는 춘천 송암동 일원에 들어서며 본부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5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건립 예산 190억원 중 절반인 95억원은 국비로 확보하고, 도비 30억원과 시비 65억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해 행정 당국과 도 정치권이 총력전을 전개할 시기입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관심도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본부 유치를 계기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넉넉지 않은 시재정에 65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세계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유동 인구를 늘리는 한편, 홍보 활동을 강화해 춘천을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자리매김하게 해야 합니다. 캐릭터 제품 등 태권도 관련 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태권도 기반 시설 확충과 숙박 등 관광 인프라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은 가장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2 ()

/ 19

해수욕장 인기 예전같지 않아 우려

-기대못미친 원인 규명 동해안시군 공동탐색 필요

동해안 6개 시·군해수욕장 방문객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여일 동안 운영된 해수욕장 85곳 누적 방문객이 폐장일인 8월 20일 647만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668만여명에 비해 3.2% 감소했습니다. 서핑 등 해양레저 활성화로 해안 관광이 사계절로 분산된 결과 드러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여름 피서지로 강원 해수욕장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평가와는 별도로 여름철을 맞아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상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관광업계와 자영업자 등은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도내 해수욕장의 저조한 사정은 작년에 비해 방문객이 증가한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한 곳만 해도 약 56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작년 484만명보다 약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령머드축제는 17일 동안 운영되면서 국내외 관광객 164만명을 끌어모았다 는 소식입니다. 개장 50여일 동안 인명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령시에서 드론과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관리하고, 1일 2회 해수욕장 클린업타

임을 운영했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하다는 호평은 내년에 더 많은 피서객을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 해수욕장의 경우 22년보다 방문객이 15% 정도 감소하긴 했으나, 일부 해수욕장에선 반려견과 함께 하는 문화를 선보여 방문객이 증가한 곳이 있습니다. 거제 명사해수욕장은 전국 최초 반려동물 해수욕장인 '댕수욕장'을 운영해 작년보다 12%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자체가 직접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피서용품 인터넷예약제 '해비치시스템'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수가 기대이하에 머무는 데는 태풍과 상어출몰과 같은 기후요인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여행 흐름에 뒤처진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객은 언제나 더 매력적인 관광지를 찾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은 경쟁과 협력 양 측면이 있습니다. 해양관광도시로서 즐거움과 흥미를 강화하고, 강원 고유의 가치를 부각하려면 각자 도생이 아닌 공동탐색을 병행해야 효율적입니다. 해수욕장 중·장기 관광활성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8 22 () / 19

체험과 힐링으로 ‘산림 수도, 강원도’ 인식시켜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고성 주 행사장을 중심으로 설악산을 끼고 있는 인제, 양양, 속초의 부 행사장에서 함께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을 통해 한국의 ‘산림 수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 중 81%가 산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허리를 맡고 있고 남한의 백두대간 면적 중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DMZ 일원 산림의 82%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명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산림청이 지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21개가 강원도에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인제의 자작나무숲, 홍천의 잣나무숲, 동해안의 소나무숲 등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명품 숲이 즐비하게 있다.

국민의 건강과 휴양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지역적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탄소 흡수원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숲을 가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리는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행사에는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경찰, 소방, 한국전력공사, 군부대, 보건소, 병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풍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 안전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문제는 이번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관광, 레저,

휴양산업과 지속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산림의 이용에 관해 더 많은 고민과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9월22일 개막
고성·인제·양양·속초 일원서 10월22일까지
경찰·소방 등과 협업, 철저한 안전관리를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산림은 맑은 공기와 동식물을 살게 하고 자연과 행복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을 먼저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산림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주지 않았다. 보전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가 씌워졌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냥 바라만 보는 관객이 됐다. 자기가 가꾸고 키운 숲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듯 자연이 준 아픔이 행복보다 더 컸었던 기억도 있다.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있다.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자연을 미래의 새로운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 그 속에 우리의 삶과 즐거움이 있고, 일터가 되는 그런 산림을 만들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8 22 ()

/ 19

강원수출 월 3억 달러 돌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사상 처음으로 월 강원수출 실적이 3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3억317만 달러(환율 1,343원 기준 한화 4,071억원)로 집계됐다. 월 강원수출 역대 최대 실적인 2022년 4월 2억8,200만 달러보다 2,117만 달러(7.5%) 늘어났다. 특히 전국 수출은 16.4% 감소를 기록했지만 강원수출은 오히려 전년(2억2,200만 달러) 대비 36.5% 증가해 더욱 이번 실적이 돋보인다. 이에 힘입어 강원무역수지도 20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강원지역 7월 수입액은 2억8,535만 달러(한화 3,83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4.0% 급감하면서 강원무역은 1,782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강원수출은 전선 품목이 주도했다. LS전선은 북미지역 해저케이블 출하로 전년 동기 대비 756.3% 급증한 1억1,684만 달러(한화 1,569억원)를 수출했다. 단일 품목 최초로 월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해 수출 효자 종목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면류(1,860만 달러)와 의약품(1,710만 달러)도 신흥국 수요 확대 등으로 각각 17.8%, 25.7% 상승하는 등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반

면 강원지역 수출 2, 3위 품목인 의료용전자기기(3,280만 달러) 및 자동차부품(2,168만 달러)은 각각 14.8%, 9.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올 상반기 부진하다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고 중국은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감소세가 확인하다. 도내 중국 수출액 비중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하반기에도 대외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어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강원수출이 월 3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찍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았던들 이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잔뜩 얼어붙었던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다. 월 수출 3억 달러 돌파에 안주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겠다. 안팎에 도사린 위험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성장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이 활기를 띠다면 답답했던 지역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출이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강원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와 주기를 바란다.